교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高同窓會報

발행·편집인: 박 동 열
발 행 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051)245-7551~3. FAX: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 쇄 처: (주)동방인쇄 (051)636-9477
재경동창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4호
Tel:(02)783-0071~2. FAX:(02)783-0073

본부 제40차 정기총회 3월28일 코모도호텔서

본부동창회 올해 첫 이사회서 확정

본부동창회 제40차 정기총회가 오는 3월28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은 같은달 14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대청동 서라벌호텔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확정한다.

신년회를 겸한 이날 이사회는 2002년 결산보고와 2003년 예산안 등 주요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제40차 정기총회에 상정할 것을 의결한다.

박 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는 변화를 추구하는 기류를 타고 있다"며 "우리 동창회나 용마가족들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변화를 도모하여 발전을 성취하자"고 말했다.

이사회 결산보고 자료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해 모교지원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와 홍보강화 등 살림살이에 1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회보 발간에는 3,300만원이 쓰였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5.6% 늘어난 1억8,700만원으로 편성됐다.

본부동창회 제40차 정기총회가 오는 3월 28일 코모도호텔에서 열려 올해 살림규모를 확정하고 조직활성화 방향을 정립한다 (사진은 지난해 정기총회).

상반기 조직운영 방향 구체논의

본부 회장단 첫 회의

한편 박동열 본부회장은 지난 2월12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일식전문점 대어에서 올해 첫 회장단회의를 개최, 정기총회와 이사회 등 상반기 조직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향운 경남고 교장(13회)이 박 회장의 특별초청으로 참석, 모교 학사운영 및 야구부 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심의된 상반기 회의 및 행사는 △2월17일 용마장학회 이사회 △2월19·20일 모교 졸업식 △3월14일 본부이사회 △3월28일 제40차 정기총회 △4월 하순~5월 초순 홈커밍데이행사 △4월30일 모교 개교기념식 △4월 하순 기별 낚시대회 △6월 초순 용마테니스대회 등이다.

감격의 제1회 졸업사진

57년 만에 어렵사리 찾아낸 제1회 졸업기념촬영 모습. 이 사진은 지난 1946년 6월 22일 부산 남일국민학교 교정에서 졸업식 직후 촬영한 것. 이 같은 귀중한 자료는 '모교60년사'에 조명된다.

1회 졸업사진 57년만에 발굴

모교60년사 자료 용마가족 적극 협조

영영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제1회동기회 졸업식 사진이 57년만에 극적으로 발견돼 흥분의 연속이다. 또 모교 야구단이 지난 65년 일본 고교야구의 '신화'를 창조하는 고시엔(甲子園)구장에서 한일고교친선야구대회를 벌인 감동의 사진도 38년 만에 우리의 손에 돌아왔다.

더구나 '경고학보' 창간 편집팀과 이를 발전시킨 후배 편집 핵심들이 밝혀졌고, 당시의 학보 등도 발굴돼 경사가 겹쳤다.

제1회 졸업식 사진은 김근준 본부고문(1회)이 잃어버렸던 것으로 알고 있던 학창시절 앨범을 팽개쳐 두었던 서류더미 속에서 찾아냈다. 이 사진에 따르면 졸업식은 1946년 6월22일 남일국교에서 거행됐다. 이밖에 축구부의 경남도선수권대회 우승기념사진 등도 제공받았다.

모교 야구단의 일본 원정 경기 사진은 최근 모교60년사 편찬위원회 자료수집팀이 당시 야구단을 인솔했던 박경원 교장선생님(경기 용인시 수지읍)을 찾아 뵙고 여러 장의 사진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것.

기획팀은 90고령인데도 기억력이 특출한 박 은사님으로부터 모교 재임 12년간의 학사운영 등에 대한 숨은 이야기들도 발굴해 좋은 자료로 삼게 됐다.

甲子園 한일고교친선야구 모교팀 첫 대전 장면 입수

'경고학보' 창간 편집진 확인 색바랜 초창기 학보 찾아내

열차 통학 선·후배들 한자리 모여 촬영한 사진도

경고학보는 국회의원을 지낸 손세일 동문(8회)이 창간 멤버로 나서서 편집 등을 주도해 제3호까지 발행했다. 이어 문예부장을 맡은 정행권 동문(9회·본부 수석부회장·문화가스개발 회장)이 주도, 편집진을 리드해 제7호까지 펴낸 후 후배들에게 넘겨졌다(이상 정행권 본부수석부회장 증언).

본부동창회가 재경동창회와 함께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교60년사 편찬사업은 이 같이 각 동기회 및 국내외 지역회 집행부와 여러 은사님들의 다양한 증언·갖가지 사진 제공 등으로 쾌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선기(11회) 동문은 열차통학을 하던 선·후배들이 어느 날 한자리에 모여 기념으로 촬영했던 사진을 제공했다. 또 다른 동문은 전차로 통학하다가 눈이 맞은 여고생과 데이트하던 1급비밀(?) 사진도 곧 우송하겠다고 전해왔다.

한편 모교60년사 편찬위원회 자료준비 기획팀은 국내외 동문들의 추억어린 사진들과 학교 안팎의 이야기들, 은사님의 당시 학사 관련 자료들과 비화 등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편찬위원회(051-245-7551~3·FAX : 051-245-7550)로 보내주면 된다.

쌍둥이빌딩
메트로타워 트윈
Metro tower twin

메트로타워(Ⅰ)-제1관:상가·원룸 복합빌딩

층수	권 장 업 종
9F	원룸(오피스텔)
8F	원룸(오피스텔)
7F	원룸(오피스텔)
6F	부페,레스토랑,노래연습장,제2금융
5F	볼스,에어로빅,당구장,노래연습장,제2금융
4F	대형호프타운,카페,팝레스토랑,룸영상주점,위락업종
3F	클리닉센터(치과,안과,소아과,내과,한의원)
2F	커피숍,제2금융권(증권,보험)미용타운,전문음식점 등
1F	약국,제과점,의류,안경,화장품,악세사리,분식,패스트푸드 등
B1	노래연습장,PC방,위락업종

메트로타워(Ⅱ)-제2관:전층 상가 전용 빌딩

층수	권 장 업 종
9F	스카이라운지
8F	학원,사무실
7F	학원,사무실
6F	부페,레스토랑,노래연습장,사무실
5F	볼스,에어로빅,당구장,노래연습장, PC방
4F	대형호프타운,카페,팝레스토랑,룸영상주점 등
3F	클리닉센터(치과,안과,외과,소아과,이비인후과,한의원)
2F	커피숍,제2금융권(증권,보험)미용타운,전문음식점 등
1F	약국,제과점,의류,안경,화장품,악세사리,분식,패스트푸드 등
B1	노래연습장,음식백화점

분양문의 055) 338-6628~9

연면적:15500㎡ / 지하1층, 지상9층, 2동

분양중인 자매건물

양산 중부동 신도시 메트로타워 빌딩

문양문의: 055)382-3335

김해 북부 신도시 월드플라자 빌딩

분양문의: 055)332-8988

새천년,일등기업 (ISO9001/2000 인증업체)
(株)高麗綜合建設
KOR.CON.CO (토목건축 제17-0090호)
대표이사 박 명 진(33회·본부부회장)
기술부 차장 황철민(38회) 기획1팀장 방용규(41회)
김해시 와동 1254-3번지 고려코아빌딩 201호 TEL.055)325-0900~5 FAX.055)325-0903

시 평

장혁표
제8회 · 본부 용마장학회 이사 · 전 부산대 총장

입立덕德수樹인人

이제 봄기운이 완연하다고 느꼈는데 꽃샘추위로 벗었던 옷을 다시 입게 된다. 순풍에 돛단배처럼 어려움 없이 잘 지나다가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람 사는 과정이다. 동창회도 한때는 순탄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어느 때 어려움이 있게 된다. 어려움이란 과거를 다시 생각해 보고 현재에 새로운 슬기를 마련하게 하는 약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옛 시조(신흔 작)에 '꽃 지고 속잎 나니 시절도 변화 거다. 풀 속의 푸른 벌에 나비되어 나타난다. 뒤라서 조화를 잡아 천변만화 하는고' 동안의 새내기들이 구덕산 자락을 드나들 때 벌써 40개 성상을 지난 지금 내 머리에 내린 이슬이 옛이야기를 하게 한다. 한 솥에 밥을 먹고 자란 동기 간도 나이 차이가 많으면 대화가 어려운데 3년 또는 6년의 세월을 한 뜰에서 살아온 것으로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용마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동창의 내음을 내며 살아왔다. 그것은 아마 한 사람으로서 기본이 되는 도리를 익히고 배웠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 친다고 한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교육에는 공통성이 있다.

그것이 사람됨의 기본을 익히는 일이다. 약속 지킬 줄 알고, 자기일 찾아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노릇을 몸에 익히는 일이다.

이미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외적으로 추앙받고 있는 유명한 어떤 과학자는 국내 위주의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고 대단한 자부심으로 살아 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토요일 어느 날 자기 장남인 중학교 2학년인 아들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아들에게 "너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들은 그런 것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30여 분 후에 아버지에게 다가와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졌습니다" 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아버지는 매우 황당했고 충격을 받았다. "왜 그러니?"라고 반문했을 때 아들은 아버지께 조목조목 그 이유를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 보이스카웃 야영 훈련 때 아버지는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사실을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에 모두 알리고 거기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행사 당일 날 아침 같이 갈 수 없다는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내 아들이 소중하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신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셨는데 아들과의 선약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이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후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원리나 법칙은 항상 변화의 중심에 있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했다.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고 원칙은 그대로이다. 다만 운용방법과 사물의 접근 방법에 변화가 있을 따름이다. 선배가 후배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상명하복의 낡은 사고는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후배가 선배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용마인의 뇌리에는 관존민비의 사상, 권력지향적인 사고가 동문 간의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가는 듯한 점이 많음을 간혹 느끼게 된다. 사회적 지위나 권력은 인간이 갖는 하나의 기능이다.

그것을 바로 누리려면 먼저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되어야한다. 우리 모두 정관물아(靜觀物我)하는 시간을 갖고 혹시 다른 동문에게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는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온정으로 대하는 동기 간의 정을 나누면서 살도록 해야 한다.

사진 왼쪽 / 지난 2월 20일 오전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경남고 제57회 졸업식.
사진 오른쪽 / 지난 2월19일 오전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경남중 제60회 졸업식.

경남고 · 경남중 2002학년 졸업식
김동완 등 4명 용마장학금 수여

본부동창회장상
이진수(경고) · 김재희(경중)

경남고 제57회 졸업식이 지난 2월20일 오전 11시 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김향운 교장(13회)은 454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장을 전달하고 학업최우수상 등 교내 수상자 41명과 경문회장상 등 대외상 8명에게 각각 상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김교장은 회고사에서 "졸업생 여러분은 미래의 주역임을 명심해 학업연마 등에서 소임을 다해 모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현(15회) 학교운영위원장은 축사에서 "명문 경남고의 전통을 이어 나갈 졸업생 여러분은 앞으로 공익 추구 · 질서 존중 · 타인 배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정준군에게 모범상을 수여했다.

박동열 본부동창회장(8회 · 해운대성심병원장)은 격려사에서 "21세기 기술-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실력을 쌓고 힘든 앞날을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로써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부 용마장학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박 회장은 앞서 서울대에 합격한 김동완 김지훈군 학생회 회장, 부회장인 이진수 장현수군 등 4명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장학금(1인 50만원)을 전달했다. 또 이진수 군에게 동창회장상을 수여했다. 이어 연당장학회(5회 고 이종열 동문 유지 따라 설립)는 김지훈군에게 연당장학금을, 최성호 동문(17회 · 의원장)은 강창우군 등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본부에서는 조대제 고문(7회) · 박 회장 · 정행권 수석부회장(9회) · 김형석 홍보이사(16회) · 김병수 총무부장(22회) 등과 관내 기관장 자격으로 성경출(25회) 서부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재경측에서는 신준호 회장(14회)이 축전을 보내왔고 배중현 제7회 회장이 참석했다.

양성림 종합최우수상

한편 경남중 제60회 졸업식이 같은달 19일 오전 10시30분 학교 체육관에서 강무기 교장 주재로 열려 졸업생 302명을 배출했다.

강 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오늘 졸업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므로 강한 집념속에서 학업을 연마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양성림 군이 종합최우수상을 받았다.

박동열 본부회장은 김재희군에게 동창회장상을 수여했다.

모교 2003학년 입학식

경남중학교 2003학년 입학식(신입생 357명)이 지난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강무기 교장이 주재한 이날 입학식에서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은 격려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10여 명으로 구성된 합주단이 애국가와 교가제창 반주는 물론 분위기를 살려주는 간주까지 곁들여 이채를 띄었다.

경남고는 앞서 4일 오전 10시 학교체육관에서 2003학년 입학식을 거행했다. 김향운 교장(13회)이 주재한 행사에는 신입생 394명을 비롯, 교직원·재학생·학부모·박동열 본부회장·김선동 시교위 위원(10회) 등 1,800 여명이 참석했다.

제22회동기회 집행부 명단

고 문
강봉기 강성봉 구자룡 김만성
김영수 김영진 김원주 김종수
김학균 노승철 박성열 박언표
박재상 손경윤 우덕현 유재진
이대선 이성모 이성철 이인준
허인석 황영환

명예회장 김도살

회 장 장영근

부 회 장
김동옥 김일봉 김일준 김진영
박승목 변대석 손연모 송철규
이민성 이상협 이정식 이철응
장무성 정상수 조봉국 한태길

이 사
강호일 강화묵 권상준 금명환
김광무 김대욱 김동원 김명수
김성재 김영철 김진환 김철호
노세현 문춘열 박귀웅 변종호
서영훈 손봉용 안종락 안진환
유명윤 이상주 이웅규 임성규
장성덕 정갑열 주우실 최우현
최일용 최학봉 한창길

직능회
둘둘산우회장 최일용
둘둘기우회장 심재복
둘둘낚시회장 김성재
둘둘골프회장 김우홍

지역회
서/중/동구 강봉기
진/동래/연제구 김영진
남/수영구 김원주
사하/북/강서구 김광무

집행부
재무이사 정도인
기획이사 손용섭
총무이사 조홍기

감 사 김병수

새해 예산 6천3백만원 확정

이사 장혁표(8회) 안강태(11회) 조길우(16회) 서정승(17회) · 감사 김태우(27회) 선임

용마장학회 이사회

본부동창회 용마장학회(이하 장학회)는 지난 2월17일 올해 첫 이사회를 개최, 3억8,656만6,040원 규모의 2002년 법인 결산보고와 6,265만 3,200원 규모의 2003년 법인 예산안을 각각 승인했다.

박동열 장학회 이사장은 이날 하오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일식전문점 대어에서 이사회를 주재, 주요의안 심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이어 감사개선에서 유임을 극구 고사한 김근준 고문 후임에 김태우 동문(27회)이 선임됐고, 방봉우 감사는 유임됐다.

특히 박 이사장은 최근 집행이 유보됐던 모교 야구부 지원 조치에 대해 이사회로부터 재량권을 위임받았다.

박 이사장은 이에 앞서 새로 선임된 장혁표(8회 · 전 부산대 총장) · 조길우(16회 · 부산시의원) · 서정승 이사(17회 · 서정승산부인과의원장)를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이사장을 비롯해 신임이사 3명과 박한복(9회 · 신생의원장) · 이용흠 (19회 · 일신설계 회장) · 김원주 이사(22회 · 마산중앙극장 대표), 김근준(1회 · 본부고문) · 방봉우 감사(10회 · 이원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종구(5회 · 삼구통상 회장) · 안강태(11회 · 신임 · 대선조선 대표) · 이규만(12회 · KML 회장) · 박재상(22회 · 천일여객 대표) 등은 출장 관계로 이날 불참했다.

'사망 회원에 조위금 지급' 등 2개 의안 이사회 재심의키로

재경경팔회 신년잔치…홍광수 등 6명 특찬금

제8회재경동기회는 지난 1월23일 오후 6시30분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리더스클럽에서 동문·가족 56명(부인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정기총회 겸 2003년 신년회를 열었다.

강성태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주요의안 심의를 통해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1박2일 코스의 남해안 관광 겸 남해자애원(고아원) 위문' 과 '회원 사망 경우 조화 외에 조위금도 유족에게 전달' 등 2개 의안이 상정됐으나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박희옥 동문은 '노년에 알아두어야 할 건강관리' 특강과 배주원 동문의 배꼽 빠지게 한 만담 등이 주목을 끌었다. 홍광수(20만원), 이유환 이창근 강성태(각 10만원), 추경석 배주원 동문(각 5만원)이 특찬금을 내 도움이 됐다.

차상구 쌍팔회장 유임

제9회재경동기회는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서초동 갈비집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고 차상구 회장(동양제강 회장)을 비롯, 박남수 이승우 부회장, 김기관 총무 등 현 집행부를 재신임했다.

차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에는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임원을 개선했다.

일행은 송년회를 겸들여 우정을 나눴다.

경열회 신임회장 신웅범

경열회(제10회재경동기회)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스포타임에서 2002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어 신웅범 동문(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승락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부인동반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원 개선에서 신 회장에 이어 수석부회장에 이근태, 총무부회장에 성 온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 국회의원 지낸

한이헌(16회) 갈비집사장변신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냈던 한이헌 동문(16회 · 사진)이 최근 경기도 구리시 안창동에 갈비집을 차려 주목을 끌고 있다.

상호는 '마포나루', 100석 규모의 갈비집은 소 · 돼지 갈비와 냉면 등을 주 요리로 삼고 있는데, 손님들이 붐벼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한 동문이 이 같은 갈비집을 내게 된 것은, 평소 부인이 음식점 운영에 관심이 많아 음식점을 내고 싶어한 데다 어느 친지가 음식점 운영을 권유했기 때문.

여기에다 부인 생각으로는 지난해 부산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남편이 언제 일자리를 갖게 될지 모른다는 절박감이 촉진제 역할을 했던 것.

그래서 부인은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끝내 한 동문은 이를 동의했다. '마포나루'는 부부가 공동대표, 부인은 주방장을 겸하고 한 동문은 일이 없을 때 가끔 나와 손님 시중(?)도 들고 잔심부름도 하며 손님들을 위한 대리주차도 해준다. 그러나 손님들은 한 동문을 잘 알아 보지 못한단다.

구리시에 '마포나루' 간판 걸고 새 출발
손님 대리주차 시켜주고 음식 심부름도

한 동문은 "먹고 살려면 뭣이든 해야죠.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라고 말하자 옆에서 부인이 거든다. "처음엔 서툴고 부끄러워 마음고생을 더러 했어요"라며 "요즘은 '음식이 맛깔스럽다'는 맛소문 입소문으로 단골도 많이 생기고 해서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한 동문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 공정거래위원장 · 경제기획원 차관 · 경제수석 · 15대 국회의원 등을 거쳤고 YS정부의 경제수석 때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개혁적인 정책을 입안했던 기획통이었다.

"모교60년사 자료수집 각 동기회에서 적극 앞장"

본부 총무협의회 정기총회…박청홍(14회) 회장 선임

본부동창회 총무단협의회(약칭 경총회-慶總會)는 지난 2월14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큰바다횟집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박청홍 동문(14회 · 사진)을 선출했다.

이창대 회장(12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박동열 본부회장(8회 · 해운대성심병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총회는 본부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첨병인 만큼 투철한 사명감으로 책무를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박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각 동기회의 조직강화에 총무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고 △모교60년사 자료수집에 각 동기회가 적극 협력하게끔 경총회가 앞장서며 △동기회는 물론 본부동창회의 각종 행사의 활성화촉진 △각 동기회 미납금 조속처리 등을 다짐했다.

제25회 회장 김종현

제25회동기회는 지난 2월27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대림뷔페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종현 동문(STK상사 대표 · 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수석부회장에 김진우, 감사에 김상수, 총무에 옥동훈 · 여성조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제영성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에는 국회의원인 박종웅 · 서병수, 울산시장인 박맹우 동문 등 70여 명이 참석, 역량을 과시했다.

김종현 신임회장은 제영성 직전 회장과 각 서클회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홈커밍 준비 상황 확인 제27회 2월 정례회

제27회동기회는 지난 2월21일 오후 7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해암뷔페 연회실에서 새해 첫 정례회를 개최했다.

김태우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34명이 참석, 오는 4월 26일로 예정된 졸업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행사 준비과정 등 보고를 비롯, 현안문제를 심의했다.

회보 광고 협찬 안내

동문 여러분을 광고주로 모십니다.

· 크기 · 금액
하단 전체(8.2cm×25cm) : 400,000원
하단 1/2(8.2cm×12cm) : 200,000원
하단 1/4(8.2cm× 6cm) : 100,000원

· 내 용
업체소개, 주요 취급품목, 대표자명(사진포함)
연락처,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051)245-7551~2

청춘예찬

청춘이란…
생의 어느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가짐을 말한다.
청춘은 장미의 얼굴, 붉은 입술,
유연한 몸매가 아니라 다부진 의지,
풍부한 상상력, 타오르는 정열을 말한다.
청춘은 비겁을 물리치는 용기
때로는 20세의 청년보다 80세의 노인에도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인간이 늙은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었을 때 인간은 늙는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더하지만
열의를 잃으면 마음에 주름이 잡힌다.
영원한 것으로부터 미와 희망과 기쁨과 용기와
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한 당신은 젊다.
당신은 80의 나이에도 청춘이고 청춘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GOLF · 콘도 · 헬스 회원권 매매

아시아드, 진주, 해운대 C.C 회원권분양 주관사
GOLF SET 도소매 중고채 고가매매

서면GOLF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524-13(서면 공작창터널입구)
전화:(051)803-0654~5, 804-1811, 805-0707
807-0707, 817-0606~8, 819-0606, 819-0707
080-201-7777, FAX:804-1810
H P:011-854-0707 대표 여 성 열(17회)
http://www.smgolf.net
E-mail:seomyengolf@hanmail.net

충무GOLF : 서구 충무동1가 10번지(충무동교차로 지하철입구)
여성근(24회)
전화:(051)241-4344~5, 254-0707, FAX:241-6643

화창한 봄날 꽃 피듯이 … 각계 용마 영진 경사 '만발'

어윤대(17회) 고려대 제15대 총장 취임
김재섭(18회) 외교통상부 차관에
박봉흠(19회)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새 정부 출범과 동시 청와대를 비롯, 각계 용마들이 영진 경사를 맞고 있다.

학계 경우 어윤대 동문(17회·위)은 고려대 제15대 총장에 선임됐다. 이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어 동문은 미국 미시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모교에서 교무처장·경영대학원장·한국금융학회장·국제금융센터 초대소장을 거쳐 현재 한국경영학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관계 경우 김재섭(18회·가운데)·박봉흠 동문(19회·아래)은 각각 외교통상부 차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입각했다.

김 동문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외시(2회)에 합격, 외무부에 들어가 국제기구국장·주독일 공사·주체코 대사·ASEM 준비본부장·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주인도네시아대사 등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이다.

박봉흠 동문은 서울대 상대와 미 듀크대 대학원을 나왔고 행정고시(13회)에 합격했다. '예산통'인 박동문은 경제기획원 물가총괄과장·예산청 예산총괄국장·국회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예산실장·차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25회)·이호철 동문(31회)은 나란히 청와대에 입성, 각각 민정수석과 민정1비서관으로 활약 중이다.

문재인(25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이호철(31회) 민정1비서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문재인 동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7세 연하의 흉허물 없는 20년 친구'라고 할 정도로 각별히 신뢰하는 사이다.

문 동문은 경희대 재학 중 시위 경력 때문에 사법연수원(12기·사시22회 합격) 수료 때 판·검사에 임용되지 못해 바로 변호사로 활약, 오늘까지 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노 대통령과 매사 서로 코드가 잘 맞는 문 동문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부산선대위 선대본부장으로 동분서주했다. 앞서 6·13 광역단체장 선거때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 대통령이 문 동문을 부산시장으로 출마토록 권유했으나 거절했었다.

근검절약이 몸에 밴 문 동문은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부산·경남 민변 대표를 맡아왔다.

이호철 동문은 문 동문이 이끄는 민정수석실 민정1비서관에 발탁됐다. 문재인-이호철로 대표되는 '부산인맥'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동문은 청와대 입성 이후 '좌호철 우광재(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이 동문은 대학 재학 중 시위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고, 노 대통령이 변호사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때 사무장을 맡았다.

정홍원(17회) 법무연수원 원장 발탁
배호원(22회) 삼성생명 대표이사 부임

김인호(28회) 서울지검 고양지청장
조병현(28회)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홍원 동문

졸업한 후 사시(19회)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거쳐 서울-부산지검 부장검사·천안지청장·제주차장검사·부산지검 2차장·서울고검 검사 등을 거쳤다.

조병현 동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시(21회)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거쳐 부산·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기업 경우 김동헌 동문(21회)은 LG건설 부사장, 배호원 동문(22회)은 삼성생명 사장으로 선임되는 등 30여 명이 임원으로 승진했다.

김동헌 동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현대종합상사와 현대건설을 거쳐 LG건설에 입사, 법제담당 상무이사·관리 및 영업지원 상무이사 등을 지냈다.

배호원 동문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제일합섬을 거쳐 삼성그룹에 입사, 삼성생명 상무·전무·부사장을 역임했다.

이긍희(18회) MBC 대표이사 선임
양승태(20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박창호(24회) 부산일보 편집국장에

언론계 경우 이긍희 동문(18회·위)은 MBC 사장으로, 박창호 동문(24회·아래)은 부산일보 편집국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 동문은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한 후 MBC에 PD로 입사, 교양제작국장·MBC프로덕션 사장·MBC 전무이사·대구MBC 사장 등을 지냈다.

박창호 동문은 동아대 영문학과·부산대 교육대학원·고려대 언론대학원을 나왔다. 부산일보 기자로 입사한 박 동문은 경제부 등 차장·생활과학부장·제2사회부장·정치부장·사회부장·편집부국장·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법조계 경우 정홍원 동문(17회)은 부산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양승태 동문(20회·가운데)은 부산지법 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각각 발탁됐다. 조병현·김인호 동문(이상 28회)은 각각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검 고양지청장으로 영진하는 등 18명의 판·검사 동문들이 전보됐다.

정홍원 동문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시(14회)에 합격,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로 출발한 이래 부산동부지청 특수부장·서울지검 특수1부장·부산지검 1차장·서울지검 3차장·광주고검 차장검사·대검찰청 감찰부장·광주-부산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양승태 동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시(12회)·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민사지법 판사 및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서울북부지원장·부산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인호 동문은 서울대 법학과를

법원·검찰·대기업 용마들 약진

▲법원 ▷김정학(25회)=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시환(26회)=서울지법 부장판사 ▷조병현(28회)=대전고법 부장판사 ▷박성철(29회)=창원지방 부장판사 ▷윤인태(30회)=울산지법 부장판사 ▷이학수(30회)=창원지법 통영지원장 ▷김형훈=서울지법 고양지원 판사 ▷백승엽(43회)=서울지법 판사

▲검찰 ▷김인호(28회)=서울지검 고양지청장 ▷김칭현(34회)=부산지검 부부장 ▷유일석(35회)=남부지청 검사 ▷이태한(39회)=서울지검 고양지청 검사

▲삼성전자 ▷정인철(27회)=상무이사 ▷최광해(28회)=부사장 ▷최봉락(28회)=상무이사 ▷박인식(30회)=상무이사보

▲삼성중공업 ▷강용병(27회)=상무이사

▲삼성생명 ▷배호원(22회)=사장 ▷서준희(26회)=전무이사 ▷안민수(30회)=상무이사

▲삼성화재 ▷배호경(29회)=상무이사보

▲삼성증권 ▷이광남(27회)=상무이사

▲삼성물산 ▷천윤철(28회)=상무이사

▲LG화학 ▷이찬홍(27회)=부사장

▲LG전자 ▷박경수(26회)=부사장

▲LG텔레콤 ▷안병욱(22회)=부사장

▲데이콤 ▷김영수(25회)=부사장

▲LG건설 ▷김동헌(21회)=부사장

▲LG카드 ▷차동민(21회)=부사장

▲SK텔레콤 ▷지동섭(36회)=상무이사

▲SK건설 ▷최낙문(29회)=상무이사

▲현대자동차 ▷김종만(24회)=이사대우

▲기아자동차 ▷박정문(24회)=상무이사

▲현대모비스 ▷김선영(27회)=이사대우

▲현대중공업 ▷차인식(26회)=이사대우

▲대한항공 ▷이실근(20회)=상무이사 ▷이휘동(24회)=상무이사 ▷강달호(24회)=상무이사 ▷차정대(26회)=상무이사

▲이수유화 ▷박석현(18회)=상무이사

오거돈(21회) 문원경(22회) 각각 박사학위 취득

오거돈 동문(21회·부산시행정부시장·왼쪽)은 최근 동아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한국정부의 사무배분 방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를 받았다.

동기회 회장직을 맡아 조직활성화와 동문·가족 유대 강화에 크게 기여했던 오 동문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 행정고시(14회)에 합격, 내무부(현 행자부 전신)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대통령비서실·부산시 내무국장·상수도사업본부장·기획관리실장·정무부시장 등을 두루 거쳤고, 특히 지난해 6.13 광역단체장선거 때는 부산시장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문원경 동문(22회·오른쪽)은 최근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 '울산 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를 취득했다. 문 동문은 지난 92년 한양대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는 학구파 고위공직자이다.

성품이 소탈하고 유대감이 강해 주변으로부터 신뢰도가 높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17회)에 합격, 부산시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와대 행정비서실 국장·행자부 재난관리국장·울산시 행정부시장 등을 거쳤다.

오·문 동문은 시정 안팎을 통해 용마가족들의 애로·희망사항이 생기면 성의껏 돌봐주는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이다.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장 이내 (명함판 사진 1장 동봉)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봄기운 솟는 수락산 누벼

재경경팔회 노익장 과시

제8회재경동기회 경팔산우회는 지난 3월1일 수락산에서 신춘산행을 했고 2월에는 도봉산(22일)과 관악산(15일)을 올랐다.

김영철 회장이 리드한 새해 첫 산행은 지난 1월11일 도봉산을 시작으로 실시, 1월 중 수락산(18일)·관악산(25일)·도봉산(31일) 등 3개 산을 누볐다.

1월 산행에는 매번 15명 정도 참가, 연인원 51명이나 됐다. 특히 도봉산 산행 때는 백설이 유난히 정취를 더했다.

하산길에 조윤제(11일)·최재혁·서영욱 동문(31일)이 준비해온 매실주와 안주, 과메기 등은 빈속의 식욕을 치솟게 했다. 눈 덮인 바위를 술상으로 삼았기에 '색 다르다고 한 잔', '안주가 좋다고 또 한 잔' 하는 바람에 풍류가 넘쳤다.

게다가 점심식사 때는 박지병 동문이 포도주 2병을 내놔 다시 흥취가 솟았는데, 이 날은 이래저래 네 가지 술을 맛본 섣달 그믐날 오후가 됐다.

특히 번번이 안주 마련에 애쓰는 김기자·주분자씨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영하 15도 혹한도 호연지기에 녹고…
태백산 등 세 곳 섭렵

경열회 사니조아 새해 산행

경열회(제10회재경동기회)의 등산모임인 사니조아는 지난 1월 중 혹한에도 불구하고 태백산·대모산·북한산 등을 올라 호연지기를 폈다.

사니조아 산꾼들은 같은 달 25일 부인을 동반하고 태백산에 올랐다. '늙은 오빠'들은 천재단~문수봉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앞서 19일에는 대모산~구룡산~능인선원 코스에서 겨울땀을 뻘뻘 흘린 후 시골추어탕집에서 팔팔 끓는 추어탕에 산소주로 추위를 녹였다.

또 4일에는 영하 15도의 혹한을 뚫고 북한산을 등정했다. 일행은 지하철 독바위역(6호선)에서 모여 구파발역을 거쳐 북한산의 대서문~대남문을 오른 후 구기동으로 내려와 쇠고기국밥과 소주로 해단식을 열었다.

기금조성 등 논의
제37회동기회 정례회

제37회동기회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천동 제일뷔페에서 제9차 정례회를 열었다.

최기영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30명이 참석, △기금 조성 △홈페이지 복구비 지원 △각 클럽 활성화 등 현안을 심의했다.

이어 수석부회장에 추창구, 감사에 지용섭, 총무에 최명해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박 신임회장은 조직활성화를 위해 가족동반 행사를 많이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족동반 북한산 도전

쌍팔회 대동문 앞에서 행운 비는 시산제 올려

쌍팔회(제9회재경동기회)는 지난 1월12일 가족동반 새해맞이 등반대회를 북한산에서 열었다.

송성복 회장이 리드한 이날 용마가족들은 북한산 대동문 초입 능선에서 시산제를 올렸고 계미년 내내 가정마다 행운이 넘치며 하는 일들이 모두 형통하기를 빌었다.

일행은 보온통에 담아온 뜨끈뜨끈한 시래기국과 잡곡밥 등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집집마다 별미로 싸온 맛깔스런 반찬을 벌여놔 '산상뷔페잔치'를 벌였다. 하산 후엔 들머리 해장국집에서 막걸리로 뒤풀이를 했다.

신임회장 박상호 뽑아
제26회동기회 정기총회

제26회동기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천동 사학연금회관 18층 크리스탈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박상호 동문(도원정형외과의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김성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 박 신임회장에 이어 수석부회장에 추창구, 감사에 지용섭, 총무에 최명해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장산에서 봄기운 만끽
일오산우회 205차 산행

제15회동기회 일오산우회는 지난 2월16일 부산 해운대 장산에서 동문·가족(6명) 등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05차 정기산행대회를 벌였다.

김정길 산행대장의 리드로 일행은 폭포사 입구에서 주등산로를 버리고 오른쪽 숲속 오솔길로 들어가 8부 능선까지 치고 올라간 후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하산길은 점심식사한 자리에서 왼쪽 횡단~돌무더기~마고당~폭포수 입구로 택했다.

'옛날에 장산국이란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 안내문을 따라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에 들어서자 산허리에 '올해 서울대학에 2명 합격'이라고 씌여진 축하현수막이 바람에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일행은 이를 두고 자기집의 경사인 양 잠시 박수를 보냈다.

칠순길 11명 눈꽃 활짝 핀 한라산에

경팔산우회 등정기 — 이·성·호(8회)

지난 1월21일 오후 7시30분 제주행 아일랜드호. '철순길나그네'로 자칭하는 경팔산우회 11명이 부산 중앙동 연안여객선터미널을 빠져 나가는 밤배에서 감회에 젖는다.

부산항은 온통 영롱한 불꽃잔치를 벌이고 있다. 부산항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줄 미처 몰랐다. 승객 250여 명과 자동차 50여 대를 싣고 18노트 속력으로 달린다. 옛날에는 유배지였던 700리 제주도를 향해 전속항진이다. 일제 강점기 때는 '눈물바다'로 불렸던 현해탄의 파고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모양인지 배는 제법 출렁거린다.

가라 앉지 않는 몸증으로 뒤척이는 검은 바다
찬바람은 살돌이하듯 끝도 없이 할고 긁어
칠흑 같은 저승과도 소용돌이치는 물결
용솟음치는 여울 거칠게도 춤을 추니
상현 반달 은빛물결 뛰어노는 구천바다
삼각파도 뒤틀려서 큰 배도 가랑잎 하나
울렁울렁 비틀비틀 철렁 멈칫 서성이다
별을 보고 찾아가는 산지포 뱅정만리
암흑의 수평선엔 등댓불도 바위 없고
고기잡이 파시장엔 집아등만 찬란한데

가도가도 한도 없어 밤바다를 수놓는데
탐라 관문 불야성에 홈쩍 들어서는구나

뒷날 22일 이른 새벽, 제주항 부두에 내려 해장국으로 배를 채우고 본격 산행을 서둔다. 승합차로 빙판길을 살금살금 기어 올라 어리목에 닿는다. 한라산 정상은 금지구역이라 윗세오름에서 엉실로 내려가기로 하고 모두 아이젠을 신발에 동여매고 출발한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10년 만에 쏟아진 폭설이 휘몰아치는 날이다. 나무마다 핀 눈꽃은 환상의 세계이다. 설경 펼쳐진 영화 한 장면같이 11명이 세로로 늘어서서 산행을 한다.

품질 좋은 수은 눈을 탐라에만 쏟았던가
은구슬 쉴새없이 아우성쳐 퍼붓는데
속절없이 눈을 쓰고 떨고 있는 상록수들
표백된 한세상에 차라리 눈집 지어
설산동산 은막집에 설성을 쌓았던가
한라산 백록담에 눈을 가득 채우고는
술하에 360오름 은구슬을 퍼부어서
눈에 묻힌 나무마다 장송곡의 공동묘지
청송남기 소복입고 구름집을 아로새겨
백금보석 빙하성도 바람으로 흐느낀다
산더미 눈더미에 미끄러져 푹푹 빠져
잃어버린 고향마냥 길도 없어 버거운데
씨락눈 얼굴 때려 바늘 찌르듯 따갑구나
살자 죽자 기를 다해 눈물겹게 발길 옮겨
저승길도 갈 것인데 백산 설산 못 오르랴
사제비오름 올라서니 폭풍한설 앞을 막고
만세동산 넓은 고원 화구벽도 간 데 없고
오름들 눈에 덮여 하늘고원 설원일세.

길 잃은 밤배에 등댓불이 반갑듯이, 윗세오름(1714m)산장에 들어선다. 산꾼들로 콩나물시루 같다.

우리는 라면으로 점심식사를 하는데, 산장 관리인이 "폭설이 심하니 빨리 내려가세요" 한다. 어쩔 도리가 없어 기념촬영(사진) 한 커트 '찰칵!' 하고 영실로 하산하기 위해 출발한다.

"이 일을 어쩌나!" 폭설이 길을 덮고 길섶 붉은 깃대마저 삼켜버려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다.

어쩌다 보니 쌓인 눈에 빠져 조난 일보 직전이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되돌아 산장쪽으로 향한다. 위험은 피해 가는 법. 별도리 없이 어리목으로 다시 내려간다. 하루 세 번 변하는 제주도 날씨에 열두 번 변하는 한라산 날씨. 금방 쏟아붓는 눈발…. 가관이다. 장엄한 암벽은 눈에 묻혀 구름 같은데 거친 남풍한설이 인정도 사정도 없이 몰아친다.

지축을 흔들 듯이 울부짖는 바람소리
뒷바람은 떠밀 듯이 내려가라 등을 밀어
등산로는 눈에 묻혀 금방 파인 발자국도
바람쓸어 쓸아부어 돌아보면 흔적 없는
황량한 융단 깔린 찬란한 설원 은영
아! 천지는 숭엄하고 변화무쌍 하던가?

내려올 때는 눈도 자자지고 바람도 자기 시작한다.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한걸음에 어리목에 닿는다. 4시간20분 동안의 발품을 끝내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한라산 치맛자락이 제주도를 이뤄 '제주도가 한라산이요, 한라산이 제주도'라 했던가. 정상 하나는 별을 잡고 솔하에 360오름을 거느린 부성이 강한 산. 명승지도 많아 한라산만 오르고 떠나기엔 너무 아쉬워 분재예술원, 여미지 등을 관광하고 24일 부산항 뱃길에 오른다.

빈속 달리고… 밤 새 마시고…

삼일마라톤회 수학여행기 – 정용정·성오룡

봄을 재촉하는 비가 뿌리던 지난 2월22일 오후 경주 하일라콘도 1613호. 삼일마라톤회 '수학여행단'이 부산·서울에서 모여들어 왁자지껄이다. 서울의 정용정과 조정제 등이 먼저와 반갑게 맞이한다. 1박2일간 처리할 보급품(?)이 거짓말 좀 보태 산더미 같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인다.

단원들(고영호 김상수 김정덕 박춘렬 성오룡 손영태 손정수 안기수 정용정 정정남 조기준 조정제 최동식 최해영)이 여장을 정리한 후 손영태 회장 주재 회의에 참석한다. △22일 오후 2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보문단지 일주(14km) 마라톤 △오후 6시까지 목욕 △오후 6시30분부터 전야제 △23일 시내 관광 후 귀가 등 내용의 일정을 의결한다.

넉넉한 술·안주에 괴담까지

콘도 앞 넓은 곳에서 준비운동을 한 후 일제히 뛰기 시작. 멀고도 먼 보문단지를 비를 맞으며 땀흘리며 호흡하며 뛴다. 새삼 우정을 느낀다.

한 2km 지나니 평소 체력단련을 충실히 한 손 회장이 번개같이 뛴다.

6시30분. 전야제를 여는 축배가 올려진다. 마금산온천의 탁빼기가 신난다. 모두 원을 그려 앉아 1차 찍기를 '대구추모'로 정하여 한 잔씩 찍는다. 안주는 유명한 포항 과메기와 홍어회, 가오리회, 매운탕 등이고 술은 막걸리 소주 맥주 양주 등으로 진수성찬(?). 그러나 혀 꼬부라진 갑론을박이 퍼졌고….

밤 11시경. 노래방 가자는 최동식의 애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동식이와 영호의 샤우팅(shouting) 창법에 두 손을 모두 들었다.

손정수 동문 부인에게 감사

다들 노래 잘 하고 춤 잘 추고 술 잘 마시고…. 마지막으로 조기준의 선창에 "후라, 경고!"를 세 번 외치고 숙소로 돌아온다. 야참으로 라면 먹고 또 과메기와 가오리 홍어회 해물탕을 더해 술판이 벌어진다. 한쪽에서는 바둑 알까기, 두 친구는 끝없이 끝없이 아침 7시까지 대작하고….

23일 아침. 해장국으로 속을 푼 후 어슬렁어슬렁 나와 시내 관광에 들어섰다가 일행은 서울과 부산으로 차머리를 돌린다.

특히 그렇게 술과 안주 등을 알뜰히 준비해준 손정수 동문의 부인 최여사님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동창회 발전 위한 수많은 일에 각 동기회 뜨거운 협조바랍니다"

박청홍
제14회
본부 총무협의회 회장

본부동창회 총무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회장이 되고 보니 동창회 활성화와 발전, 용마가족 상호 간 친교, 유대 강화를 위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걱정이 앞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들은 각 동기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이 담보됨으로써 성취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 총무협의회(일명 경총회)는 각 동기회의 총무들로 결성된 모임입니다. 동창회의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을 뒷바라지하는 조직으로,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총무들이 모여 애로사항과 협조사항을 수시로 의논합니다.

각 동기회의 살림을 맡은 총무들의 모임이라서 동문들의 동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와 동창회 활성화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6월에 제1회부터 제47회까지의 각 동기회 총무들이 모여 결성했습니다. 이때 초대회장에 김수현 동문(5회)을 선임했는데, 김 회장은 2000년 6월까지 봉사했습니다. 이어 제2대 회장은 이창대 동문(12회)이 2002년 12월까지 맡았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의 직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중책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저는 7년여 동안 동기회 총무를 맡아오면서 여러 형태의 동창회의 역할과 더불어 다양하게 살아가는 동문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선·후배 동문들이 돈독한 유대 속에서 형님이나 아버지같이 따르고 동생이나 자식같이 뒷받침해주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일원이 될 수 있었음은 참으로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명문고 출신의 동창회이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용마가족 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들 총무협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역량을 결집해 본부동창회의 조직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총무협의회는 본부동창회가 주최하는 기별대항의 야구대회·등산대회·용마골프대회·용마바둑대회·테니스대회·낚시대회 등을 위한 상임이사제를 신설, 각종 대회의 진행 관계에 적극 협조하면서 동창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동창회에 건의하여 동문 구직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동문 회사에 구직을 알선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많이 활용해주시고 동창회의 모든 활동에서 끊임없는 협조와 이해를 바랍니다.

국악인 초청 신년음악회

제31회 손영태 회장 유임…클럽 활성화 주력

제31회동기회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18층 뷔페파크 이화룸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손영태(한국카델코 대표이사·사진)을 유임시켰다.

손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 개선에서 현 집행부를 재신임했다.

특히 총회 식전공연으로 국악인을 초청 신년음악회를 열어 50여 동문들을 감동시켰다.

집행부는 앞으로 등산 낚시 바둑 골프 등 각 클럽 활성화에 주력하고 행사 때에는 음악 시 그림 등 작품전을 곁들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정서함양을 도모할 계획이다.

'馬昌용마' 지령10호

마산·창원회보 알찬 편집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지난 1월 10일자로 대번지 '馬昌龍馬' 제10호(사진·회보표지)를 발행했다. 타브로이드판 4쪽인 이 회보는 발행인 김재근 마창회장(19회·동마산병원장), 편집인 하성일(22회)·이상희 동문(25회·편집장 겸임)의 헌신으로 엮어지고 있다.

'馬昌龍馬' 제10호에는 △1면:2002 용마의 밤 행사·신년사(안종무·6회) 등 △2면:지령 10호 회고(이상희·25회)·2003년 정기총회(3월20일·마산 사보이호텔)와 올해 1차 이사회(2월20일) 안내·여성동기회장 탄생 등 △3면:하계수련대회·추계바둑대회·하계바둑대회·동문 동정 등 △4면:의무분담금 및 찬조금품 현황 등이 실려있다.

"활성화·협력에 적극 동참" 제8회동기회 정기총회

제8회동기회는 지난 1월10일 오후 6시 부산역 앞 광장호텔에서 김봉길 회장 주재로 정기총회(40여 명 참석)을 열고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활성화와 화합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결의했다(사회:도은영 총무).

2부 단합회는 박동열(본부회장)·이윤조 동문의 제의에 따라 축배로 시작했고 정담 속에 소줏잔을 주고받았다.

김상훈(26회)
'생명·평화 기도회' 주재

김상훈 동문(26회·주예교회 담임목사·사진)은 지난해 12월14일 오후 7시 만덕성당에서 부산종교인 대화아카데미 공동대표 자격으로 '생명과 평화를 위한 기도회·음악회'를 주재했다.

부산종교인 대화아카데미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 등의 지도자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참여, '사랑 넘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날 김 동문이 이끈 행사는 1부 촛불기도회와 2부 작은음악회(각 종교단체의 합창단 출연)로 진행됐다.

오래만 살면 무엇하나

새 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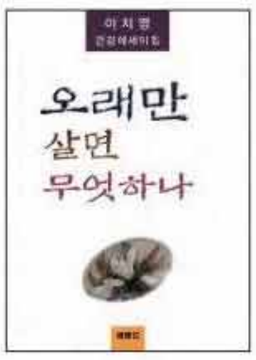
이치영(15회) 지음

이치영 동문(15회·영남대의료원 세포검사실장·사진)은 최근 현대인에게 유일한 건강에세이집 〈오래만 살면 무엇하나〉를 출간했다. 북랜드-8,000원.

모두 5부로 기획된 이 책은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현대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느끼고 경험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사실들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제1부 '건강 새 천년'에서는 노화지연 비결·암예방 식생활 등을, 제2부 '건강할 때 지켜야 할 우리 몸'에서는 쾌면·콜레스테롤 두 얼굴 등을 다루고 있다.

또 제3부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건강식품'에서는 콩밥 위력·건강보조 식품의 유용성 등을, 제4부 '아름다운 성, 건강한 성'에서는 건강한 성생활·어느 행복한 노인의 강정식품·신비의 경지에 이른 고대 인도의 성전 〈카마수트라〉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제5부 '작은이야기'에서는 성인용품의 허와 실 등을 다뤘다.

단국대와 영남대 환경대학원을 나온 이 동문은 대한임상병리과학회·조직세포검사학회·대한세포병리학회·국제세포학회 정회원이다. 특히 지난 94년 월간 〈순수문학〉 수필부문 신인상을 받아 등단, 한국수필가협회·대구수필문학회 동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자궁경부암의 세포학적 유병률과 그 관련요인' 등 다수이고, 저서로는 〈어둠은 아직도 창 밖을 서성이고(공저)〉 등 여러 권이 있다.

게·시·판

제8회 동기회

잔디회 새해 첫 골프대회

재경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3월6일 오전 10시 안성CC에서 5팀이 기량을 편 제118회 골프대회를 열었다.

2월 바둑우승 조석제

재경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3월8일 오후 1시30분 일품기원에서 3월 정례대국을 벌였다.

한편 지난 2월8일 오후 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 2월 대국에선 조석제 동문이 우승을, 최대영 동문이 준우승을 했다.

제10회 동기회

경열회 친목회 회장 교체 바람

경열회(재경 10회)의 각 친목회가 새해 들어 2월부터 일제히 기지개를 펴고 우정 확산과 건강 증진에 나섰다.

강남화요회(회장 성 온)는 25일 정오 서초갈비촌에서 신년회를 열고 축배를 들었다. 앞서 여의도회(회장 최윤해)는 18일 정오 광산각에서 술잔을 나눴는데, 그간 헌신해온 김상태 회장이 분당의 새보리회 회장을 맡게 됨에 따라 이 자리를 최 회장에게 넘겼다.

사하회(회장 권승부)는 지난 1월28일 오후 7시 동백식당에서(9명 참석), 일오기우회(회장 이요셉)는 같은달 25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9명 참석)에서 각각 신년회를 열었다.

삼오회(회장 손부홍)는 같은달 20일 오후 7시 부산 수영구 남천동 동화반점에서 신년회 겸 창립 1주년 자축회를 베풀었다. 일행은 저녁 식사 후 광안대교 야경을 즐기기 위해 광안리로 옮겨 뒤풀이를 했다.

삼팔회(회장 최병우)는 같은달 17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송원 한정식집에서 부부동반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열었다.

한편 결산보고에서 밝혀진 '9년 만의 첫 적자'는 회원 전원이 특찬금을 각출해 보전키로 결의했다.

제26회 동기회

산악회 '야유회+대동제' 주관

제26회동기회는 지난 2월25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천지연숯불갈비에서 2월 정례회를 열었다.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16일 용마산에서 시산제를 올렸다. 이날 오전 10시 산꾼들은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에서 만나 산행에 들어갔고, 안산회(회장 김기문)는 11일 정오 늘 모이는 안산 중앙역 다릿목추어탕집에서 축배를 들며 새해 행운을 빌었다.

동수회(회장 박해철)는 8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강남바둑에서 신년수담을 즐겼고, 강북회(회장 이효술)는 4일 정오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신년회 겸 신·구회장이·취임식을 벌였다.

오랫동안 헌신한 손 정 회장에 이어 이 회장이 살림을 맡았다.

한편 테니스모임인 정우회는 최근 임원 개선을 통해 김용목 회장 후임으로 박칠민 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박상호 회장이 주재한 이날 정례회는 '앞으로 열 야유회는 대동제와 겸하고 동기회 주최·산악회 주관으로 한다'고 방향을 결정했다.

제15회 동기회

각 친목회 왕성한 출발

화친회(회장 김판열)는 지난 2월11일 일식전문점 소도에서, 이화회(회장 이동근)는 같은 날 부산 중구 부평동 한가위에서 각각 월례회를 열었다.

화친회에는 10명이, 이화회에는 8명이 참석했다.

제28회 동기회

이팔골프 우승 이원용

골프모임인 이팔동우회는 새해 첫 라운딩을 지난 2월23일 오전 동부산CC에서 펼쳤다.

조광제 회장 등 16명이 4개 팀으로 나눠 기량을 겨뤘는데 우승 이원용·메달리스트 노영현·준우승 김용원·행운상 신영준 동문이 차지했다.

대회 후 단합회에서 노영현 전 회장은 조 회장이 총무까지 맡아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총무'를 자청, 주위를 감동시켰다.

제30회 동기회

재경회 이사회 18명 참석

재경회는 지난 2월1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서초동 숯불갈비촌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18명이 참석했는데 박성중 동문(서초구청 부구청장)이 20만원을 특찬, 이날 예산 충당에 큰 보탬이 됐다.

어디서 무엇을

제 5 회

禹明洙=본부동창회 고문. 노인생활과학연구소. 부산 남구 문현4동 255-30 무학프라자 204호. 051-644-5025 http://www.wellageing.com

제 6 회

金主坤=재경동창회 고문. 전 조선맥주 대표. 2월23일 별세

제 8 회

孔相泰=(자택이사)부산 수영구 남천2동 삼익타워 3동202호. 051-624-7039
成亥源=(자택이사)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399-6 진미가든. 054-823-0789
洪光秀=2월14일 서울 새천년웨딩홀에서 장남 정웅군 결혼
朴雨翔=(자택이사)서울 종로구 원남동 23-4
朴相載=(전화변경)02-391-6061. 017-304-6061
金永基=(전화변경)02-2671-0064

제 9 회

朴宗根=(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1374 대림3차아파트 304동1202호. 051-743-2873
朴浩一=(자택이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동문아파트 109동501호. 031-903-1997
金尙贊=(자택이사)서울 강남구 도곡2동 467 타워팰리스 D동 3504호. 02-3462-3150
金景植=(자택이사)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18동903호. 02-785-1260
盧英燮=(병원이전)서울 강남구 대치동 63 쌍용상가 202호. 02-558-8500
李春植=12월4일 서강대내 성당에서 장녀 선민양
車相九=1월4일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삼남 성철군 결혼
裵允漢=2월15일 화랑예식장에서 차남 준선군 결혼
金成宇=(자택이사)경남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226-1. 055-355-9744

제 10 회

金正學=부산 남구 감만2동 43-30. 051-644-7738
金林奎=부산 수영구 광안2동 161-35. 051-753-5518
金昌權=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 대성그린빌라 101호. 055-526-1915
李基敦=경남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10 코오롱타운 116동 1702호. 055-297-5725
崔炯伯=(자택이사)경기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삼거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 116동804호. 031-287-4789
金棟坤=(주)계림요업 서울사무소장. 02-3442-7301
金泰鉉=(자택이사)서울 서초구 방배동 847-25 렉스빌 51호
李鐵煥=1월 24일 부친 별세

제 13 회

吳相贊=1월26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삼녀 경미양 결혼
李源羽=2월8일 부친 별세
文正義=2월15일 서울 JW메리어트 5층 그랜드볼룸에서 장남 주호군 결혼
朴建一=어민종합총연합(전국어민총연합과 전국소형어민총연합이 통합) 총회장 취임. 2월18일 다대포항에서 개소식 및 출정식
安性文=(주)C&T 대표이사 취임. 경북 영천시 대창면 사리1리 377-3. 054-336-5183
文炯才=(주)아름고속여행 (주)아름관광 회장 취임. 부산 중구 중앙동6가 8 팔각정동. 051-463-0084 팩스051-462-8427

제 14 회

韓昌秀=빌드통상 대표. 051-740-5161. 지난해 12월21일 해운대 우동성당에서 장녀 결혼. (자택)051-742-2566
金宇龜=선화약국 대표. 051-802-6994. 지난해 12월 29일 전포성당에서 장남 결혼. (자택)051-522-8663
朴鍾汶=삼성약국 대표. 1월12일 벡스코예식부에서 장녀 결혼. 051-242-9187
金容浩=(주)통영예선. 02-2168-3288. 055-648-7651. 1월5일 새마당예식장에서 장남 결혼. (자택)051-206-3707
廉相周=염약국 대표. 2월8일 서울압구정성당에서 3남 결혼. 051-206-3377
崔忠洛=한영콜드체인 상무. 055-322-7042. 2월23일 골든웨딩프라자에서 장남 결혼. (자택)051-206-5801
朴憲穆=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 051-620-4515. (자택)051-621-6369
尹龍男=거제중앙(고현)초등학교 교장. 011-9531-9178

제 15 회

曺源郎=1월18일 서울 현대문화센터웨딩홀에서 차녀 재영양 결혼
이요셉(추남)=기독동문(용마신우회) 회장. 1월23일 수영로교회에서 16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용마신우회 모임 가짐
李憲雨=2월6일 지병으로 별세

제 16 회

權福述=1월25일 장녀 혜원양 결혼시키고 38명 초청 고성갈비에서 결혼턱
徐修弘=1월12일 모친 별세
李榮珪=부일정화(주) 대표이사 취임. 051-301-7777~9
朴鏞吉=PSB(부산방송) 상무이사. 1월20일 모친 별세
金宗允=(자택이사)경남 창원시 남양동 동성아파트 6동605호. 055-265-3115
吳世圭=(자택이사)부산 사상구 학장동 571 극동아파트 101동 404호. 051-312-6157
朴龍一=(주)온팍스포토텍 대표이사. 장남 창현군 결혼시키고 25명 초청 고성갈비에서 결혼턱
朴文奎=한국지식재단 시행 제2회 공매경매사 자격시험 합격. 자격증 취득 051-205-9760
朴宰成=범호수산 대표. 2월16일 장남 상은군 결혼
兪英明=2월23일 장녀 지강양 결혼. 018-576-9322

제 18 회

金吉帝=동기회장. MSC 대표이사. 055-389-1001
全英錫=해운대 성심병원 소아과장. 051-743-5555
陽世震=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161-88. 051-256-4427
黃大淵=부산 온천3동 한사랑아파트 101동1303호. 051-507-8884
金勇基=부산 남구 용당동 현대아파트 103동1201호. 051-625-3632
池文碩=세운종합병원 소아과장. 051-522-6000
梁龍吉=환경관리공단 상임이사. 051-888-3620
徐成德=아람마트 대표이사. 051-728-7272
宋翔一=송상일비뇨기과 원장. 051-245-4515
孫天益=부산 동구 초량2동 쏠라맨션 나동101호. 051-468-5990
崔龍雲=최용운성형외과 원장. 051-245-0480
馬鍾準=명신비료 대표이사. 052-264-8951
夫昌九=중앙의원 원장. 051-332-6717
朴貴煥=상지건설 감리본부 상무. 051-247-0208
金東善=해인화학 부사장. 055-364-8600
千斗甲=유니코상사 대표. 051-319-3931
崔寬哲=두합산기 대표. 051-319-4631
崔康登=정공산업 대표이사. 051-261-2911
張壽一=신성그래픽 대표. 051-865-2088
송한승=송죽학원 이사장. 055-646-1155

제 20 회

朴炳千=신흥울테크. 2월21일 경남 양산시 신기동에 대나무 와인 삼겹살 개업. 055-382-2020
趙顯晋=삼공사. 3월 2일 창원 인터내셔날호텔에서 아들 재범군 결혼. 011-9335-5063
金台英=엠엔에스 대표. 2월13일 용호조선소에서 MS-8호 신조 진수식 거행. 051-462-9135
강경수=시민의 신문 울산본부장 취임. 052-268-1621

제 23 회

金東沃=동기회 회장. 인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055-320-3115
金宗圭=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들.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9-4 협성법조빌딩 202호. 051-954-2001
金泰容=부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051-626-6550
金泰鴻=카리스수산(주) 대표. 부산 서구 충무동1가 39-45 창성빌딩 508호. 051-231-3307
金虎敬=성창기업(주) 총무이사. 051-260-3310
朴守甲=부산노무사 소장. 23산우회 회장. 총동창회 용마산악회 부회장. 051-465-4141
朴宰完=국제통운(주) 컨테이너터미널 이사. 051-630-5630
白昌英=협성해운(주) 상무이사. 부산 중구 중앙동4가 유창빌딩 3층. 051-463-1451
玉致範=옥치과 원장. 국제신문빌딩 2층. 051-502-2580
全映朝=남일회계법인 대표. 부산 중구 중앙동6가 동방빌딩 301호. 051-463-8833
鄭相建=정상건소아과의원장. 부산 사하구 당리동 325-18. 051-202-1363
河鍾基=법무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9-4 협성법조빌딩 1003호. 051-501-7422
韓英哲=좋은예감(지갑, 가방)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3-22. 051-201-4767. (자택이사)부산 사하구 괴정1동 491-9 국제아파트 2동107호
許 渡=영도구청 사회산업국장. 051-413-6801
韓進洙=동아일보 영남본부장. 부산 중구 중앙동4가 53-11. 051-464-7870

제 25 회

金泰善=양운고등학교 서무과장
尹宗有=외환은행 동광동지점장. 부산 중구 동광동2가 4. 051-246-7511. 011-836-7511
李成雄=중소기업진흥공단 부장.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77-2 사학연금회관 13층. 051-630-7420
安熙錫=(주)삼보아트텍 대표. 울산에서 공장 설립 중. 052-239-3006. 011-9306-9281
李相熙=지오디 정보컨설팅감리 대표. 경남 창원시 상남동 71-6 동양생명빌딩 2층. 055-261-5541
曺晃道=외환은행 부산본부장.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9-1

제 27 회

南慶鎭=동아대학교 의료원 진단방사선과 교수. 2월 23일 모친별세. 011-851-5365
李承準=재경동기회 총무. 사단법인 한국양돈연구회 회장 취임. 02-547-0672
李光男=삼성증권 기업금융담당 상무.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 종로타워 10층. 02-2020-8070 팩스 2020-7549 gn1009@yahoo.com 011-480-0090
宋弼元=(자택이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라일락마을 서해아파트 2327동 1102호. 032-228-9408
郭泰洪=S&S 비만 클리닉 개업. 일산 주엽역 4번 출구 화성 프라자 4층. 031-925-3375
金聖秀=(주)레진마트 설립. 서울 영등포구 당산 1가 122. 02-2068-5186, 017-334-0177
金鍾道=지엠대우오토 앤 테크놀로지(대우자동차 상호 변경) 상무로 승진
李起峰=프로우텍(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미씨오피스텔 2124호. 02-6248-9076. (자택이사)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 103동 605호. 02-6248-9075
韓尙勳=불이건축사무소 소장. 1월 31일 부친 별세. 02-3410-6911. 011-9087-9311
玉政勳=2월 21일 장인 별세. 051-621-6900

제 28 회

金漢奎=부산아크릴의 경영지원실장. 051-310-5605 ,019-548-6112
桂豪慶=치과의원장. 연상동. 051-864-7448
鄭白洙=부친 별세. 017-565-1009
李明學=양재 정보통신(주) 대표이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청강빌딩 6층. 051-556-8003
金春根=인도네시아 최대의 신발회사인 (주)동조 부사장. 자카르타 거주. ckkim@dongjoe.com
金慶俊=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 공무원. kjknc@earthlink.com
崔然旭=부경대 제어계측과. 교환교수로 미국 1년 지난주 귀국
宋運德=구미 코오롱 공장장. wdsong@kolon.com
朴珍化=현대중공업 실장
安商元=삼성화재 태영대리점 개업. 02-779-7780. 011-9268-9351. 이메일 sahn@hanafos.com
崔匡海=삼성반도체 부사장
千允哲=삼성물산 건설부문 상무
趙炳顯=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제 30 회

朴炳奎=내과병원장. 부친 별세. 051-243-7357
金政亨=부친 별세. 011-836-0425
玉裕田=우리은행 서초로 지점장. 02-521-1441. 011-9635-1614

제 31 회

趙永基=부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설방재과(재난종합상황실). 051-888-4596. 011-9320-2840

제 37 회

朴秀福=2월 24일 부친 별세. 016-843-1946.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 광안대로 구경 오세요!

'세계도시 부산'의 새로운 국제적 관광명소인 광안대로가 개통돼 국내외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큰 해상복층 현수교인 이 다리의 아경은 꿈과 낭만과 사랑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광안대교는 전체길이 7.4km · 중앙현수교 900m · 폭 18~25m · 2층 구조 8차선이다.

뉴욕회, '결속' 공감대 확산

정기총회 동문 · 가족 85명 참석 우정 확인
김동환 신임회장(22회) "조직활성화" 다짐

미국 뉴욕지역동창회가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키고 화합과 결속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뉴욕회는 지난해 12월21일 뉴저지 대원에서 동문 · 가족 85명이 참석, 정기총회 겸 송년잔치를 열어 김동환 수석부회장(22회)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형수 회장(17회)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조형선 총무(27회)의 사회로 진행,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했으며, 이어 송년잔치를 벌여 우정한마당을 연출했다.

김동환 제18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재해 등 격변을 겪으며 살아오고 있다"며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용마정신을 살리고 잠재력을 집결시켜 '하나'가 되자"고 말했다.

△회장=김동환
△수석부회장=김도명(24회)
△부회장=김정필(25회 · 골프회장 겸임) · 김치갑(26회) · 조형선(27회) · 김영무(29회) · 김태영(31회)
△등산회장=심상용(20회)
△총무=최환승(37회)
△재무=박철원(44회).

부부동반 100여명 새해 '신바람' 제14회 신년회

제14회동기회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30분 부산 서면 롯데호텔 에멜랄드룸에서 신년회를 열었다.

이종민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부부 동반 100여 명이 참석, 부인 노래 경연(사진)과 동문 장기자랑, 부부2중창 등으로 즐거움을 나눴다(사회 박청홍 총무).

동창회 사상 첫 여성동기회장

경남중고동창회 사상 첫 여성지역동기회장이 탄생돼 국내외 용마가족들 사이에 잔잔한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마산 · 창원지역동창회 제19회동기회장으로 뽑힌 이유순씨(오일환 동문 부인).

이 회장은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월1일 첫 기념행사로 새해 해맞이 등산대회를 단행했다. 이날 새벽 4시 마산여중 운동장에 집결한 동문 · 가족 30여 명은 여성회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 산행에 돌입했고 무학산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모두들 새해 일출을 향해 "야호! 후라경고! 제19회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일행은 회장의 리드십을 두고 "보기보다 당차서 여자라고 알봤다간 큰코 다치겠다"고 입을 모았다.

마산 · 창원지역 제19회동기회 이유순씨 첫 해맞이 행사 무학산서 … "여보, 나 잘했지!"

이씨가 남자들도 여간해서 선임되기 힘든 지역동기회장의 영광을 동창회 사상 처음으로 누리게 된 것은, 평소 용마가족으로서의 남다른 헌신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동문 · 가족들의 친교에 특유의 가교역할을 했던 것이 높이 평가됐다.

이 같은 연유로 이곳 제19회동기회는 지난해 12월20일 마창지역회 송년회인 '용마의 밤' 행사 직후 정기총회를 열어 평소 조율해 두었던 계획안에 따라 이씨를 2003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이씨는 '에라, 모르겠다! 여자라고 못할 게 있나, 주는 감투(?)인데…' 하는 심경으로 이를 수락했다. 박수갈채와 환성이 장내를 삼켜버렸다.

남편인 오일환 동문은 "걱정이 앞섰는데 리드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공식행사나 회의장에서는 남편을 떠나서 회원자격으로 회장의 지시나 명령을 절대 따라야 하니 꾹 참고 위계질서를 지켜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9회동기회 행사 잇따라 박가내에서 송년잔치

제9회동기회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천동 박가내에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수 회장 주재로 송년회를 개최했다(사회 최성욱 동문).

바둑 우승 박상영·유금열 박한복 · 정행권 특찬금

한편 이날 오전에는 동기회 사무실에서 동기회장배 쟁탈 연말 바둑대회를 열었다.

이날 A조에서는 우승 박상영 · 준우승 박장석, B조에서는 우승 유금열 · 준우승 윤진한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박한복(20만원) · 정행권 동문(10만원)이 특찬금을 회사했다.

제16회 신년회 성황
마산 · 대구 등 62명 참석

제16회동기회 신년회가 지난 1월 23일 부산 중구 대청동 서라벌관광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열렸다.

이채언 회장이 주재한 신년회는 부산을 비롯, 대구(채경일 하호길) · 마산(손한조) · 밀양(변일수) · 창원(천 경) 등지 동문 62명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소외 느끼지 말고 더욱더 분발하고 자주 만나며 건강하자"고 말했다.

이어 차기 산악회장으로 내정된 이겸일 동문은 "건강 다스림은 등산이 최고이니, 부부동반으로 많이 참석해 달라"고 홍보했다.

건축비 20% 절감

■ 기존 설계의 개선과 건축비 절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동산 활용방안과 사업성은?

빌더스 net
건축과 부동산
www.build.co.kr

건축/부동산의 전문가집단
051-247-6992

송철식
(경남고 23회 · 서울법대 27회)

박종균
(부산고 23회 · 서울대건축과 28회)